

이혼 경험자들이 듣자마자 몸서리치는 말

이혼을 고심하는, 혹은 이혼한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답을 내리기 쉽지 않다. 10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면 100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걸맞은 말을 하는 수밖에. 하지만 '빅데이터'에 따르면,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는 존재한다.

허프포스트(huffingtonpost.kr)가 다수의 이혼 경험자들이 전하는 '이혼하며 들은 가장 무례한 말들'을 소개했다. 이 중에는 척 들기에도 '이건 아니지!' 싶은 말부터 '이것도?' 싶은 말까지 다양하게 포함됐다.

1. "애들은?"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리즈 힐라드는 이 말에 대해 "무례함 이상, 가혹함 이하"라고 평했다. 아이가 몇 살이건 부모의 이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적대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

힐라드는 "애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도록 하는 게 옳은 일이나?"고 반문했다. 어떤 결혼의 경우, 이혼이야말로 최선의 환경을 위한 발걸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래서, 누구 잘못인데?"

이혼 전문 변호사 니콜 소도마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쌍방과실"이다. "깊은 관계를 맺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양쪽 모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계속 변한다. 처음 관계 그대로 계속 지속되리라 보장할 수 없다."

3. "누가 애/개/집을 갖는데?"

"이 얘기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 마련이다." 이혼남 페졸드가 말했다. 캐묻는 건 둔감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4. "넌 누가 돌봐?"

"당연히 내가!" 힐라드가 말했다.



"이혼하면 누가 널 돌봐주나?"는 질문은 당사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말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 질문은 무례하고, 위협적이다. 이혼 당사자를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고 누군가에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5. "드디어 나도 네 남편/아내 싫었어."

이혼하는 지인에게 선부른 충고만큼이나 위협한 게 있다. 바로 (전) 배우자 뒷담화다. 공감과 위로의 뜻을 담았다고? 글썽.

이벤트 감독 아담 페졸드는 "그 말을 통해 친구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만약 둘이 재결합이라도 한다면, 당신은 곤란해질 거다"고 설명했다. 진정으로 지지해주고 싶다면, 그냥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자.

6. "새로 시작해야지!"

작가 패티 블루 헤이즈는 수년 전 이혼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남편을 그리워했다. 그런 그에게 친구 부부는 말했다.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이 말을 들은 헤이즈는 "더욱더 외로워졌다."고 회상했다.

사진=shutterstock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MART** 옆

HOWARD DRUGS

· 깨끗한 시설 · 저렴한 가격 · 친절 서비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담 전문

세리토스, 실버치, 싸이프러스, 롱비치, 하와이언 가든, 다우니

30년 병원 임상경험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하워드 약국
562-866-6011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JSK 건축, 플러밍

물 수요 :

Lic #1049049 **재해복구 전문업체**

제이킴
714.249.5469

Text로 주소 주시면 무료로 1 oz 샘플 보내드립니다(213-880-3027)



세계적인 청정해역 남부 바하 캘리포니아산 **저염** 소금 50 lbs 100 포대 한정 판매합니다. **\$250/50 파운드 팩**

Prior to the 1950s, salt extraction in this area was small-scale and methods were rudimentary. In the 1950s, San Francisco ceased supplying salt to the US west coast paper industry and an alternative source of salt was needed. Daniel Ludwig (who would later build the famed Acapulco Princess Hotel) set up a company at the saline Ojo de Liebre coastal lagoon near Guerrero Negro in 1954; three years later, salt was exported to the USA for the first time. Ludwig sold the company in 1973. Exportadora de Sal (Salt Exporter) is now jointly owned by the Mexican government (51%) and the Japanese Mitsubishi corporation (49%).

주문 및 배송 문의: **213.880.3027** Kenneth Lee / 이 일